

“문화로 도심 재생... 젊은층 북적이게 할 것”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문화 중심, 행복 동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노희용 광주시 동구청장은 7일 민선 6기 4년 동안 문화와 도시재생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민선 5기 동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문화와 도시재생을 구의 경제발전 축으로 삼기 위한 밑바탕을 다져왔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키는 등 ‘문화 중심, 행복 동구’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 드린다. 현재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도시재생 등 새로운 상승과 도약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총장축제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 선정을 비롯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200억 원), 주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도심 유스호스텔 등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물론 공·폐가를 이용한 게스트 하우스 조성 등이다. 또 아시아권 관광객에 대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사업도 추진 중인데, 5·18 아카이브와 5·18 민주광장, 문화 전당권역 디자인 명품거리 조성, 지산유원지권 오감 한옥마을 조성 등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동구는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4년 간 국토부로부터 200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접목한 중심 시가지지를 회복시키겠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전망은 밝다.

연차적으로 갈마초 예술마을과 나무전 예술거리·도시재생지원센터·충오 창의 단지 조성에 134억 원을, 동명마을 답사길·청소년 문화거리·남도음식거리·도심



노희용 청장 프로필 ▲1962년 광주 출생 ▲광주 인성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지방고시 1회 합격 ▲동구청 지역교통과장 ▲광주시 사회복지과장·문화정책실장 등 역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총장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승격됐다. 발전방향은.

▲올해로 11년째인 총장축제는 올해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로 승격됐다. 해마다 1만7000명의 출연자와 400만 명의 방문객 등 지역경제파급효과만 545억 원이다. 가파른 성장을 해온 게 사실이다. 원은 올해 총장축제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제화 원년의 해로 삼은 뒤 점진적으로 세계 10대 거리문화 예술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세계 공연예술 행사는 물론 세계 전통문화제임장, 글로벌 가족만마당 행사 등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닌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조하는 예술문화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민선 5기 때 우수한 복지정책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데.

▲주민 맞춤형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편 뒀다. 민선 6기 복지정책의 모토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이다.

우선 동(洞)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할 생각이다. 동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 134명을 배치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13개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공동체 위원(600명)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또 민선 5기 때부터 해왔던 효(孝) 출동대 운영과 함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55곳)와 독거노인 1촌 결연사업(1004명) 등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할 생각이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아차·하남산단 약취 모니터링에 시민참여 실·국장 인사... 원칙 벗어나지 않겠다”

윤장현 시장 첫 간부회의

기아자동차와 하남산업단지 약취 모니터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 광주시청 1층 로비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기아차, 하남산단 약취 모니터링에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약취) 기준치는 단순한 수치일 뿐이며, 시민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적(광주지동 3. 4. 7일자 6면)된 기아자동차 등의 약취 배출 관련 시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윤 시장은 또 “시 청사는 외견은 물론이고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위압적이고 성체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시청사 1층을 작은 도서관, 로컬푸드 판매점, 작은 전시공간, 시민 발언대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청사 내 어린이집이 햇볕도 들지 않고 하늘도 구름도 볼 수 없는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며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서 “어린이들을 위해 공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 시장은 이날 회의의 내내 시민 중심

의 시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든 시정 계획의 출발과 끝에는 시민이 있다. 공직자들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책의 시작도, 끝에도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주 내에 실·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실·국장급 인사는 조직 개편 전에도 가능한 만큼 조직안정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4급 이하 인사는 7월말 조직개편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실·국장급 인사 원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필만한 사람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공서열 등을 무시한 발탁·과적인사 배제 방침을 내비쳤다.

윤 시장은 또 일부에서 제기한 외척이 5급 비서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친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론된 당사자는 이 총사촌의 매제쯤 되고, 오래전부터 왔던 인물은 아니다”면서 “선거 때 캠프에서 회계담당을 맡겼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무엇보다 선거비용을 법적 사용 한도보다 훨씬 적게 아껴서 사용한 점이 마음에 들어 비서관으로 내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박진표기자 lucky@

월남·용산·선교 일대 6000세대 명품주거단지 건립 계획

문화전당권 디자인 거리·지산유원지 오감 한옥마을 조성

공동체 정착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6기엔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찾는 활기찬하고 부활하는 동구 실현에 매진하겠다.

▲지역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은.

▲동구의 미래 비전은 ‘문화 중심, 행복 동구’다. 다시 말해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고 먹고 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권역별 발전전략이다.

문화전당권과 무등산권으로 분류했는데, 우선 문화전당권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도심예술촌 조성, 총장로 외국인 쇼핑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무등산권엔 의재로 아시아아트문화공원과 지산유원지 오감한옥마을, 동적골 야생화단지 등 아시아문화전당과 KTX 환승역과 연계한 탐방 기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한 동구의 대응 방안은.

▲개관되면 매년 약 30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구는 개관 대비,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육성지구 등 재생거점연결사업에 54억 원을, 도시맛집 바꾸기·마을기업 깨비동 하우스·마을기업 푸른길 아트공방 등 지역문화 창출·확산에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수동·계림동·지산동 일대(근린재생권) 노후 주거지 개선하고 월남·용산·선교 일대(신도시권) 6000세대 명품주거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넓은 상가 재생 금남로·총장로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 재생사업들을 통해 젊은 이들이 찾는 활기찬 구로 만들 방침이다.

▲도시공동화 극복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선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이라고 본다. 동구에선 월남 1·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을 펼쳐 100% 분양기록을 세웠다. 타지역에서 인구유입률도 전체의 86%인데,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함은 물론 젊은 경제활동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적용, 신규 개발보다 도시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경제

“지역발전·민생경제 위해 시당이 먼저 변할 것”

김윤세 새누리 광주시당위원장

“시민과 당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활기찬 광주시당을 만들겠습니다”

7일 취임식을 가진 신임 김윤세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치로 광주시당의 새로운 활력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책임 정당으로서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해야 할 일은 지역발전과 민생경제를 챙기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일”이라며 “이러한 민심을 담기 위해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먼저 변하고 혁신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 1층을 시민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 토론회나 각종 모임을 열 수 있는 ‘시민 사랑방’으로 운영하겠다”면서 “특히 당원이 대접받고,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이 당의 중심이 되는 시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 광주발전을 이 어지도록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따오는 일, 지역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두루 기용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광주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대구와 부산이 변하고 있는 만큼 광주가 먼저 지역주의를 던져 자랑스럽고 당당한 멋진 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당위원장 취임식에는 이현재 전임 시당위원장과 김윤세 신임 시당위원장, 이원구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사무총장, 유수택 전 최고위원, 주영순 전남도당위원장, 김상민 국회의원, 시당 및 당청 주요 당직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래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청
지멘스 상무점
학림빌딩 501호
농협(순천지점)
아비동감자탕